

삼성SDI, 3분기 연속 영업적자

2007년 3/4분기 1000억원대 적자 ... 판매가격 하락에 감가상각

삼성SDI가 3/4분기 1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3분기 연속 1000억원대 적자를 냈다. 삼성SDI는 3/4분기 매출 1조3232억원에 영업손실 1182억원, 순손실 1030억원의 실적을 내는 데 그쳤다고 10월23일 발표했다.

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18억원, 영업이익은 1617억원이나 감소했다.

삼성SDI는 영업실적 부진에 대해 “거듭된 판가 하락과 감가상각 탓에 큰 폭의 영업적자가 지속됐다”고 설명했다.

사업부문별 매출은 PDP 3820억원, 전지 2480억원, MD(모바일 디스플레이) 2780억원, 브라운관 3930억원이었다.

삼성SDI는 PDP패널이 88만대 판매실적을 거두고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자평하고 4/4분기에는 50인치 이상 대형기종과 풀HD 싱글스캔 기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임을 밝혔다.

또 전지분야에서는 1억100만셀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4/4분기에는 생산거점 추가를 추진하는 동시에 가격 차별화를 통해 시장점유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.

MD에서는 AM OLED(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)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브라운관 라인도 효율성 높은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가동효율을 높이면서 판가 인상을 추진하는 등 탄력적인 전략을 펼쳐나가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0/23>